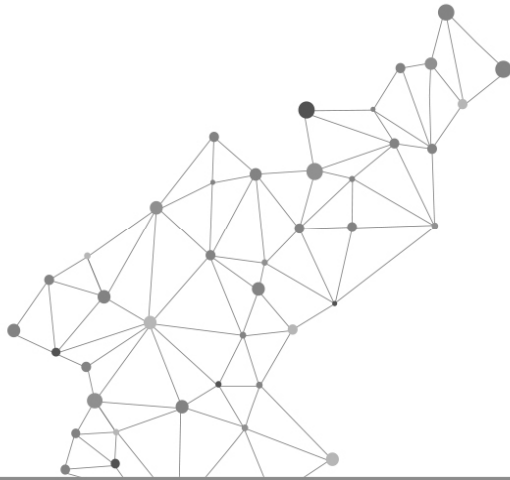


부문별 주요 기사

11월 1일 ~ 11월 30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11월 1일~11월 30일

대내경제 76

<시장>

휘발유 및 디젤유 가격 상승한 반면, LPG 가격은 안정세

<농업>

북한 당국 주민들에게 태양열 온실과 버섯공장 건설 강요

북한 당국, 각종 외화벌이 회사에 농업자재와 식량 수입 지시

<보건>

북한 어린이 지역 간 영양상태 격차 심각

남북관계 77

<남북경협>

남북철도 조사 본격화

남북 산림병해충 협력 작업

대외경제 78

<북중관계>

북중 교역준비 활발

<북미관계>

미 상하원, 새로운 대북제재 준비

<대북제재>

북한의 밀수, 불법환적 적발

미국, 강경 대북제재 유지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시장>

RFA(11.1, 11.13)

휘발유 및 디젤유 가격 상승한 반면, LPG 가격 안정세

겨울철 난방용 연유 수요 급증과 대북제재로 인한 연유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북한 연유판매소의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연유부족으로 판매 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LPG 가격은 20kg 가스통 1개당 90위안 선으로 비교적 안정세라는 소식임. 북한 시장 내의 이러한 LPG가격의 안정세는 북한당국이 중국산 LPG를 꾸준히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대북 소식통은 전함. 금수산의 사당 재정경제리부에 소속되어 있는 백호무역회사는 라선지사 이름으로 원정리 세관을 통해 대형차량으로 꾸준히 LPG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고 알려짐.

<농업>

Daily NK(11.5, 11.29), 뉴데일리(11.6), RFA(11.29)

북한 당국 주민들에게 태양열 온실과 버섯공장 건설 강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도, 군들에 태양열 온실과 버섯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짐. 이에 각 도당위원회에서는 매일 건설상황을 감독하고 있으며, 모든 공장과 기업소는 물론 일반 주민들까지 온실 건설에 동원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태양열 전지판, 비닐 박막 등 건설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장, 기업소를 비롯해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짐.

북한 당국, 각종 외화벌이 회사에 농업자재와 식량 수입 지시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북한의 곡물 수확량 부진이 예상되자, 북한 당국이 워크(무역허가증)가 있는 각종 외화벌이 회사들에게 농업자재와 옥수수, 콩, 밀가루 등 식량을 수입하라는 과제를 하달 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대북제재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어 있는 외화벌이 회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임.

<보건>

RFA(11.2, 11.30), VOA(11.9), 매일경제(11.20), 한국경제(11.20), 서울경제(11.30)

북한 어린이 지역 간 영양상태 격차 심각

2018년 세계 영양보고서(2018 Global Nutrition Report)는 북한 어린이의 저체중 문제가 2000년 보고서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고함. 2000년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발육부진(stunting, 연령 대비 키 기준) 비율은 51%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 27.9%로 관찰되어 발육부진 비율은 개선되었다고 보고서는 발표함. 또한 5세미만 어린이의 저체중(wasting, 키 대비 몸무게 기준)비율은 2000년 12.2%에서 4%로 향상된 것으로 관찰됨.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 영양 상태가 2000년과 비교해 비교적 개선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발육부진 비율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평균의 12.2%보다 약 2배 이상 높고, 저체중 비율 또한 동아시아 평균의 2% 보다 2배 더 높다며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또한 지난 4년간 빈혈을 앓는 북한 어린이 비율의 감소세마저 느리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반면에 한 전문가는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지표들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보았을 때 큰 개선을 띄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평양과 지방 간 격차는 여전히 있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발육부진(stunting)의 경우 북한 전국 평균은 2012년 28%에서 2017년 20%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관찰됨.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양은 10%, 양강도 30%가 넘어 지역 간의 격차는 굉장히 심각 문제인 것으로 설명함.

남북관계

<남북관계>

동아일보(11.23), 세계일보(11.23), 파이낸셜뉴스(11.26), 매일경제(11.30), 파이낸셜뉴스(11.30)

남북철도 조사 본격화

11월 30일 북한의 경의·동해선 철도구간을 조사할 남측 조사단이 파주에서 출발하였음. 남북은 12월 17일까지 18일 간 약 2600km를 이동하며 북측 경의선(개성-신의주)과 동해선(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조사할 예정임. 남북철도 조사단 방북에 앞서 유엔안정보장이사회

와 미국으로부터 독자제재 예외인정을 받았음. 한국 정부는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물품 등 반출 품목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예외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대북제재위의 동의가 필요함. 한편, 이번 남북한 공동 철도 조사가 향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한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보도임.

남북 산림병해충 협력 작업

한국정부는 11월 29일 북한과의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약 50톤을 북한에 전달하였음. 한편,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에 전달하는 물품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이며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품목을 선별하였다고 밝힘. 정부는 북한 남북협력기금 41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북한지역의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14억 700만원(구매 및 수송비)을 지원하기로 결정.

대외경제

<북중관계>

Daily NK(11.12), 시사인(11.15), 한국경제(11.16)

북중 교역 준비 활발

북중 양국이 함경북도 남양구와 지린성 투먼시를 잇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교량 상판식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짐.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향후 이를 통해 북중 간 교역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내년 초에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 다리는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맞아 떨어진 결과물. 함경북도에서 중국과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양을 거치는 것이 좋으며, 나진항과 청진항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려는 중국 입장에서라도 전략적으로 유용한 인프라이기 때문임.

또한 북한과 중국은 신의주를 단둥시와 연계해 국제경제지대(특구)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짐.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이 구상하는 신의주 특구 개발방향은 네 가지. 첫 째,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진입도로와 세관 건설. 둘 째, 남신의주 개발. 셋 째, 신의주-평

양 간 고속도로 신설. 넷째, 기존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시의 건설 총계획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함. 김 위원장이 중국과 관문도시인 신의주를 본격 개발함으로써 북중 경협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임.

<북미관계>

VOA(11.29, 11.30)

미국 상하원,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 준비

미 상원외교위원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이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본 결의안은 12월 14일 상원의 표결 이후 공식 발효되지만, 결의안의 첫 번째 항목으로 ‘북한의 NPT’ 복귀가 언급된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음. 한편, 미국 상원 가드너 의원은 가능하다면 내년 상원에 계류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인 리드액트(LED Act)를 반드시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리드액트와 더불어 ‘브링크액트(BRINK Act)’ 역시 북한과 관계있는데,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또는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대북제재>

VOA(11.6, 11.28), 조선일보(11.10, 11.23), 한겨레(11.15), 뉴데일리(11.28)

북한의 밀수, 불법 환적 적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따르면 2018년 1~8월까지 최소 40척의 선박이 북한의 석유제품 또는 석탄 수출과 관련이 있다고 전함. 제3국(대만, 토고 등)에 선박을 등록한 후 석유제품을 거래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이 거래한 석유량을 추정한다면 약 250만 배럴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함. 또한 북한이 야생동물 밀거래를 통해 북한 정권의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 하원외교위원회는 밝힘. 북한의 해외주재 외교관들이 아프리카의 코뿔소 뿔과 상아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함.

미국, 강경 대북제재 유지

중간선거 이후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북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음. 미 재무부는 7일 6300만 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 조치함. 또한 인도적 대북 지원 품목도 간간하게 들여다보고 있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아일랜드 구호단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등이 지난 8~9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물품 지원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고 있음. 미국이 '검토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임. 한편, 미국 법무부는 북한 금융기간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1곳과 중국 기업 2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또한 일본의 최대은행인 '미스비스 UFJ 파이낸셜 그룹(MUFG)'도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반면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는 행정부의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AFSC)를 비롯해 미국 내 인도주의 단체, 비정부기구 35곳은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서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 제재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한 '보건·안보와 북한'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인도주의 기구 활동가들과 안보·보건 전문가들이 대북제재를 이유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는 것에 비판적 의견을 밝힘. 상황이 악화돼 북한에서 보건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 정부의 장악력 악화 등으로 이어져 핵 통제력 약화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냄.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제재 예외 요청 승인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고 IFRC가 밝힘. 대북제재위원회는 9일에 처음으로 북한 반입을 허용한 인도주의 물품을 공개함. 또한 세계식량기구도 올해 두 건의 제재 예외 요청을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 됨.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11.19)

아래 표는 11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 단체 (국가명) | 지원일 | 지원품 | 지원액 혹은 지원량 | 비고 |
|-------------|------|-----|---------------|-------------------------|
| 스웨덴 | 2018 | 지원액 | 470만 달러 | 스웨덴 정부의 올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액 |

정리 | KDI 북방경제실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11.01] 북 일부지역 연유 부족으로 판매중단 사태 (RFA)
- [2018.11.02] 유엔기구들 “북 주민, 발육부진·영양결핍 심각” (RFA)
- [2018.11.05] 北, 외화벌이 회사에 느닷없이 ‘옥수수 수입하라’ 지시 (데일리 NK)
- [2018.11.06] 미 하원의원 “북한, 야생동물 밀수로 테러 자금 조달” (VOA)
- [2018.11.09] 전문가들 “북한 영양아 영양 실태 상당히 개선, 평양-지방 격차 여전” (VOA)
- [2018.11.10] 美, 6300만달러 北자산 동결… 北 “미국의 오만한 행태” (조선일보)
- [2018.11.12] 북한 남양-중국 투먼 잇는 다리서 상판식…북중교역 요충지되나? (Daily NK)
- [2018.11.13] 북, 중국산 LPG 대량 수입 (RFA)
- [2018.11.15] “대북 인도주의 지원 막지 말라”…미국서 커지는 우려 (한겨레)
- [2018.11.15] 북·중 훈풍에 신의주 특구 부흥할까 (시사인)
- [2018.11.16] 신의주 개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북한…특구개방 본격 시동거나 (한국경제)
- [2018.11.19] 스웨덴 “올해 대북지원 470만 달러 수준…분배감시 한 차례” (RFA)
- [2018.11.20] 북한 여성·아동 건강상태 ‘매우 취약’…모성사망을 남한의 8배 (매일경제)
- [2018.11.20] 북한 여성·아동 건강상태 ‘심각’…모성사망을 남한의 8배 (한국경제)
- [2018.11.23] 남북 철도 공동조사 ‘유엔 제재 면제’ 유력 (세계일보)
- [2018.11.23] 美 속도조절 주문한 날, 정부 남북사업 41억 의결 (동아일보)
- [2018.11.23] 美, 日최대은행 대북제재 위반 수사 (조선일보)
- [2018.11.26] 유엔·美면죄부 받은 남북철도연결, 경험 확산으로 이어지나 (파이낸셜뉴스)
- [2018.11.28] 미 법무부, 북한 돈세탁 연루 싱가포르·중국기업 몰수 소송…300만 달러 규모 (VOA)
- [2018.11.28] 북한과 불법환적 선박, 올 8월까지만 40척 넘어 (뉴데일리)
- [2018.11.29] 북, 지방에 태양열 온실과 버섯공장 건설 강요 (RFA)
- [2018.11.29] “북한, 내년도 경제성과 도출 위해 내부역량 총동원 주력” (데일리 NK)
- [2018.11.29] 상원 외교위 NPT 결의안 가결…북한에 NPT 복귀 요구해야 (VOA)
- [2018.11.30] 상원 대북제재 법안들 내년 재상정 움직임…북 행동 변화 위한 새 조치 필요 (VOA)
- [2018.11.30] 세계영양보고서 “북 어린이 빈혈·저체중 심각” (RFA)
- [2018.11.30] 세계영양보고서, 북한 女 빈혈·아동 발육부진 문제 심각 (서울경제)
- [2018.11.30] “유엔 안보리, 인도지원 ‘대북제재 예외’ 분위기 탄력” (VOA)
- [2018.11.30] 정부, 산림병해충 방제약 50톤 北에 전달…개성 소나무림 공동방제작업 벌여 (파이낸셜뉴스)
- [2018.11.30] “北으로 출발, 신고합니다”…남북 철도조사 대장정 (매일경제)